

“난 특별하지 않은 배우... 친구이자 이웃”

‘거미집’ 송강호 칸 8번째 초청
걸작 만들려는 영화감독 연기
“연기지만 외로운 직업 깨달아”



제76회 칸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송강호

/연합뉴스

“송강호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예요. 길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 이웃이자 친구 같지요.”

김지은 감독의 ‘거미집’으로 제76회 칸국제영화제에 또 한 번 입성한 배우 송강호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생애 한 번 오기도 어렵다는 칸영화제에 4년을 내리 초청되고 지난해에는 ‘보코’로 한국 최초로 남우주연상까지 받았지만, 자신은 “(흔하기 때문에) 감독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배우”라고 몸을 낮췄다.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은 물론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마라톤이 아닌 다르게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 달려야 해요. 상은 그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일종의 중간 지점 같은 의미일 뿐입니다. 상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달라진다고 특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송강호가 칸에 온 것은 이번이 8번째다. 2006년 ‘괴물’을 시작으로 ‘밀양’ (2007), ‘박쥐’ (2009), ‘기생충’ (2019) 등 한국 영화계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작품과 함께 칸을 방문했다.

그는 “칸에 네 번을 오든, 다섯 번을 오든 간에 또 다른 작품 세계가 있는 감독님과 배우들과 온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박찬욱·봉준호·이창동·고레에다 히로카즈 등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으로 칸에 왔던 송

강호지만, 이번 작품이 갖는 의미는 좀 더 특별할 듯하다.

2008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후 15년 만에 김지은 감독과 함께 칸의 무대에 섰기 때문이다.

송강호는 “그때는 그다지 추억이 없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함께 온 배우들이 많고 머무르는 기간도 길어서 바쁜 일정이지만 많은 추억을 담고 간다”고 했다.

극 중 송강호는 김지은 감독의 페르소나로 보이는 1970년대 영화감독 김기영을 연기했다. 유신정권의 검열과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걸작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짐을 짊어진다. 촬영이 끝나고는 홀로 의자에 앉아 세트장을 바라본다.

송강호는 “아무리 연기지만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망상과 꿈을 오가며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하고, 그 와중에도 스스로 일어나 결정

하는 과정을 보니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그가 영화감독을 연기하는 것은 1990년 데뷔 이후 처음이다. 극 중 김기영은 외모나 작품 스타일이 고(故) 김기영 감독을 떠올리게 하지만, 특정 감독을 꼭 짚어 참고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송강호는 “그 시절 영화 현장과 감독들의 전체적인 오마주라고 생각하고 역할을 소화했다. 이 영화는 그로테스크하지만 지독한 우화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캐릭터를) 구상하고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감독의 재능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끊임 없이 배우로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배우진) 모두가 좋은 작품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가잖아요. 다 함께 감독 역할을 하는 셈인데, 감독을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합뉴스

“팬들이 있어 함께한 모든 날이 빛났다”

그룹 샤이니 데뷔 15주년
군백기 끝 완전체 팬미팅



샤이니 데뷔 15주년 팬미팅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샤이니가 빛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이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앞으로의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빛나는 날로 만들고 싶습니다.”

2008년 히트곡 ‘누난 너무 예뻐’로 가요계에 등장한 아이돌 그룹 샤이니가 데뷔 15주년을 맞았다.

샤이니의 멤버 태민은 지난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연 팬미팅에서 “1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날이 빛나는 날이었다”고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말했다.

15년 전 5인조로 데뷔한 샤이니는 데뷔곡인 ‘누난 너무 예뻐’부터 ‘링딩동’, ‘루시파’, ‘셜록’ 등을 연달아 흥행시키며 2010년대 케이팝을 이끌었던 2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이다.

탄탄한 가창력과 독보적인 음악 세계, 다채로운 콘셉트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방송에서도 활약하며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다.

최근 모든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며 ‘군백기’를 끝내고 돌아온 샤이니가 완전체로 팬 미팅을 연 건 이번이 4년 8개월 만이다.

전날 열린 팬미팅 첫날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멤버 온유는 “팬의 합성을 듣자마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울렁거렸다”며 오랜만에 팬과 재회한 벅찬 소감을 말했다.

‘피스 오브 샤인’ (Piece of Shine)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팬미팅에서 샤이니는 지난 15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모

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온유는 “데뷔 15주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담요’라고 생각한다”며 “함께라서 따뜻하고 포용력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돌아봤다.

태민은 “다가올 20주년과 30주년, 그리고 60주년 기념 디너쇼를 열 때까지 팬과 함께 할 시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누난 너무 예뻐’, ‘아미고’, ‘에브리바디’ 등 샤이니의 15년을 빛낸 대표곡을 팬들과 함께 부르며 여전한 라이브 실력을 뽐낸 샤이니는 올해 발매 예정인 음반에 실릴 미공개 신곡 ‘더 필링’ (The Feeling)과 정규 7집 수록곡 ‘데이즈 앤드 이어스’ (Days and Years)로 팬과의 만남을 마무리했다.

올해 단독 콘서트와 음반 발매를 앞둔 샤이니는 “올해는 샤이니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샤이니월드(팬 애칭)에게도 일, 공부, 결혼 등 많은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태민) /연합뉴스

KBS, 연말 신규 코미디 프로 방송한다

‘개콘’ 종영 3년여만

KBS가 ‘개그콘서트’ 종영 3년여 만에 올해 연말 신규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KBS는 지난 26일 새 코미디 프로그램을 연말에 편성하기로 하고 그 무대에 오를 크루(Crew) 선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그콘서트’는 과거 시청률 30%에 근접하며 공개 코미디의 인기를 견인했으나 참체기 끝에 2020년 6월 막을 내렸다. 공개 코미디 포맷 자체가 시들해진 것도 원인이었지만, ‘개그콘서트’

가 외모 비하 등 시대에 뒤쳐진 코미디나 편파적인 정치 풍자를 선보인 점도 시청률에 발목을 잡았다.

다만 KBS는 ‘개그콘서트’를 종영할 당시 “새로운 변신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는다”고 밝혀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개그콘서트’가 막을 내린 후 국내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은 tvN ‘코미디빅리그’가 유일하게 남아 명맥을 잇고 있다. 2011년 처음 방송된 ‘코미디빅리그’는 케이블 채널 특성상 전성기 ‘개

그콘서트’만큼의 시청률을 기록하지 못했으나 각 팀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선한 재미 요소를 선보였다.

KBS는 새 프로그램을 위한 크루를 모집하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이나 대본 등 자신의 역량이 담긴 자유 형태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한 문턱을 낮춰 인재를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서류에 합격한 이들은 6월 중 면접을 보게 된다. 최종 선발된 크루는 신규 프로그램의 무대에 올라 공개 코미디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피프티 피프티, 영화 ‘바비’ OST 참여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그레타 거윅 감독의 신작 영화 ‘바비’의 오리진사운드트랙(OST)에 참여한다고 소속사 어트랙트가 밝혔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영화 ‘바비’의 공식 SNS에 올라온 OST 참여 아티스트 라인업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를 비롯해 영국의 팝스타 두아 리파, 니키 미나즈, 라이언 고슬링, 리조 등이 이번 작업에 참여한다.

피프티 피프티는 K팝 아티스트로서는 유일하게 라인업에 포함됐으며 OST 중 ‘바비 드림스’ (Barbie Dreams)를 부른다.

7월 개봉 예정인 ‘바비’는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바비랜드에서 살아가던 주인공 바비가 현실 세계에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마고 로비가 주인공 바비 역을 맡았으며 라이언 고슬링이 바비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켄 역으로 출연한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대중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 11:55 불만해도 괜찮아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별만한 아침 1부 8:05 해 별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굿이아 굿이아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어쩌다 마주친 그대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하늘의 인연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00 930 MBC 뉴스 9:45 기분좋은 날 10:45 뽀빠이 좋아 11:15 헬로키즈 공학교실 11:30 주니토니아가기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스 8:50 좋은일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6:10 세계대마케팅 7:00 빅블루 7:15 하프와 친구들 7:45 뽀빠이 부부맨 8:00 당동명 유치원 8:20 출동! 슈퍼핑크 9:05 고고디노 우리동네공룡 9:20 인간과 바다 10:10 한국의 물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대마케팅 12:00 EBS 뉴스12 12:10 귀하신 몸 1:00 EBS 평생학교 1교시 4:00 영어 스토리 타임 5:00 페피피 5:20 티타임 쿠키 6:10 레이디 비그와 블랙캣 7:00 한국의 물레길 7:50 극한직업 8:40 세계대마케팅 9:35 한국기행 9:55 EBS 다크프라임 10:50 건축탐구 집 11: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이웃집 찰스 8:30 굿이아 굿이아 9:00 KBS뉴스9 10:00 시사기획 창 10:50 뉴스라인W 11:30 이슈 픽셀과 함께	6:30 2TV 생생정보 7:50 비밀의 여자 8:30 박원숙이 같이 삽시다 9:50 어쩌다 마주친 그대 11:05 사랑남기는당나귀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하늘의 인연 7:40 MBC 뉴스데스크 9:00 PD수첩 10:00 헛바닥 종합격투기 11:30 100분 토론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0:20 강심장 리그	51년생 활력이 가득한 하루다. 63년생 기회는 다시 오니 마음 편하게 가져다. 75년생 뜻밖에도 반가운 손님의 방문이다. 87년생 하기 싫어도 오늘 할 일은 해라.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생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5월 30일 (음력 4월 11일)

 子 48년생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60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하라. 72년생 작은 일도 무시 말고 최선을 다하라. 84년생 사소한 것도 꼼꼼히 살펴라.	 辰 52년생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64년생 위장장에 생기니 식사는 거르지 마라. 76년생 생 생각을 바꾸면 편해진다. 88년생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준다.	 申 44년생 건강을 위해 걸러라. 56년생 모든 일은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힘들다. 68년생 눈치만 보지 말고 의견을 말하라. 80년생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마라.
 丑 49년생 가족에게 솔직함을 털어놔라. 61년생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 73년생 능력이 따라가 따라 없다. 85년생 잔정이 많아 남을 위해 봉사하는 날이다.	 巳 41년생 약속이 많은 날이다. 53년생 현실에 맞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65년생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77년생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보자.	 酉 45년생 친목을 돈독히 하라. 57년생 방해꾼이 없으니 막힘은 없다. 69년생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는다. 81년생 매사에 조심해야 하는 하루다.
 寅 50년생 남에게 베풀수록 복은 돌아온다. 62년생 허세를 부리면 입방아에 오른다. 74년생 생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라. 86년생 한 번쯤 양보하라.	 午 42년생 변화를 받아들여라. 54년생 베풀고 구설이 생긴다. 66년생 일진이 좋다. 78년생 모든 일은 계획을 세워 꼼꼼히 살펴라.	 戌 46년생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다. 58년생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라. 70년생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따른다. 82년생 매사에 신중하라.
 卯 51년생 활력이 가득한 하루다. 63년생 기회는 다시 오니 마음 편하게 가져다. 75년생 뜻밖에도 반가운 손님의 방문이다. 87년생 하기 싫어도 오늘 할 일은 해라.	 未 43년생 억지로 하다가 부작용이 생긴다. 55년생 여행을 가고픈 마음이 굴뚝 같다. 67년생 동서분주 하나 실속은 없다. 79년생 어른에게 상의하라.	 亥 47년생 소중한 사람과 다치지 마라. 59년생 가족의 경사로 웃음꽃이 만발하다. 71년생 서로에게 관심이 커진다. 83년생 목표가 정해지는 하루다.